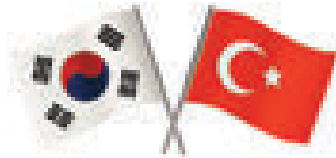




최초 제국의
수도
하투샤





Koordinatör

Turan SOĞUKOLUK

Editör

Serap GÜMÜŞOĞLU
Turan SOĞUKOLUK

Bilgi ve Fotoğraflar

Çorum İl Kültür ve Turizm Müdürlüğü Arşivi
Boğazkale Kaymakamlığı Arşivi
Çorum Müzesi Arşivi
İsmail DÖLARSLAN
Şahin ŞEKER

Grafik Tasarım

Pegasus Görsel İletişim Hizmetleri • 0 364 213 63 00 • ÇORUM

Kapak Tasarımı

Serap GÜMÜŞOĞLU

Baskı

Dumat Ofset / ANKARA
Bahçekapı Mah. 2477 Sokak No:6 Şaşmaz - Etimesgut / ANKARA

Tercüme

Akdil Tercüme Dış Tic. Müşavirlik Kirtasiye İnş. San. ve Tic. Ltd. Şti. Tel: 0 312 425 38 46 / ANKARA

ISBN 978-605-149-920-8

2017 / HATTUŞA / BOĞAZKALE

Hattuşanın tanıtımı için hazırlanan bu kitap para ile satılmaz. Bu kitapta yer alan fotoğrafların yayın ve kullanım hakkı fotoğraf sanatçılarına ve kurumlara aittir. Hiç bir şekilde kısmen veya tamamen kopyalanamaz, çoğaltılamaz, ticari amaç için kullanılamaz.

서언

문명의 출신 및 각 시대를 목격 한 아나톨리아 지역이 히타이트 및 갈라디아서 . 로마 . 비잔틴 . 셀주크 . 오스만 제국 등 많은 뿌리 깊은 고대 문명을 자체 지역에서 수집되어 있다.

약4000년 전에 아나톨리아에서 건국 된 나라는 아나톨리아에서 역사상 최초의 통일을 하여 제국을 만드는 역사에서 아나톨리아의 최초의 국가는 히타이트 제국; 고고학 발굴 작업으로 발견 된 역사적 공예품으로 세계 문명역사 및 인류의 기억을 밝혀서 아직도 신비를 유지 하여 험준한 바위 위에 설립 화려한 수도가 하투샤. 즉, 히타이트 자신의 진술로 수천 신이 있는 도시.



문명을 인식과 알리는 것이 평화와 인류애가 지배되는 이 땅의 현재 주인으로써 우리의 주요 의무 이다. 국가의 최초 의정서의 규칙을 구성 하고 여성을 지배인으로 영향력을 내고 왕뿐만 아니고 자문위원회가 있는 관리 시스템; 동성애자 및 노예도 민법에 대한 원칙을 포함 한 사법시스템 및 최초의 바상 관행; 군사제도 및 최초의 군사계급시스템; 자신의 믿음을 반영 했던 양각 바위 사원 및 신화의 신; 며칠 동안 명절; 점토 명판 쓰인 설형문자 및 화보 상형 문자; 독특한 돌과 아도비 점토 건축, 놀라운 터널, 신비스러운 피라미드와 독특한 건축; 역사적으로 최초 세계전쟁인 카데시 전투를 이기게 하는 것이 전술과 서면 역사의 최초 제국인 히타이트 제국 및 그 제국의 표시인 풍부한 히타이트 문명의 상속자로 그 문명과 신비로운 역사를 세계적으로 확산 하여 홍보 하는 것을 희망 한다.

유엔에 소속한 유네스코에 의해1986년에 “세계 문화 유산” 및 2001년에 “세계 인류의 기억” 리스트에 추가 된 고대 도시 하투샤; 발굴작업 시 나타나고 세계 최초 선언 “카데시평화조약”으로 역사의 깊이에서 세계의 국가를 우정과 평화에 초대 한다.

우리도 너희를 이 제국 및 문명의 상속자로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모든 것에 대해 최초를 하고 우리에게 풍부한 유산을 남긴 히타이트 제국의 수천 신이 있는 평화 및 관용의 도시 인 수도 하투샤를인식 하는 것으로 초대 한다.

Turan SOĞUKOLUK
보아즈칼레 지방 지사

히타이트에 대한 일반 정보

하투샤에서 고고학적 발견물을 도달 하기 전에; 이집트, 바빌로니아, 아시리아의 고대비문 및 ve 성서와 토라 책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나온 한 민족이 있고 개발 한 문명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그에 대한 아무 정보가 없었다. 이 분실한 문명의 흔적을 1834년에 프랑스 여행자 Charles Texier이 아나톨리아로 여행 시 야즐르카야 야외사원 및 하투샤 고대 도시의 유적에 도달하여 발견했다. 그 다음년에 발견 및 발굴 작업의 결과에 따라 그 곳이 분실 한 문명 인 히타이트의 수도 하투샤 이라는 것이 밝혔다.

히타이트는 자신의 서면 고대비문에서 자신을 “Nesili” - “Neşali”로 불렀지만 히타이트 이란 표현이 고대 토라에서 그 민족에 대해 그대로 사용 하였기 때문 이다.



히타이트는 북쪽에서 아나톨리아로 이동은 기원전2000년에 시작 하여 처음에는 시국으로 역사에서 자리를 차지했다. 다른 히타이트 시국 인 카니시/퀼테페의 (카이세리 시 주위) 군주 아니타(Anitta)가 하투샤를 포위 하여 오랜 포위 공격 후 도시를 도시를 정복했다. 그러나 기대했던 전리품을 획득 하지 못 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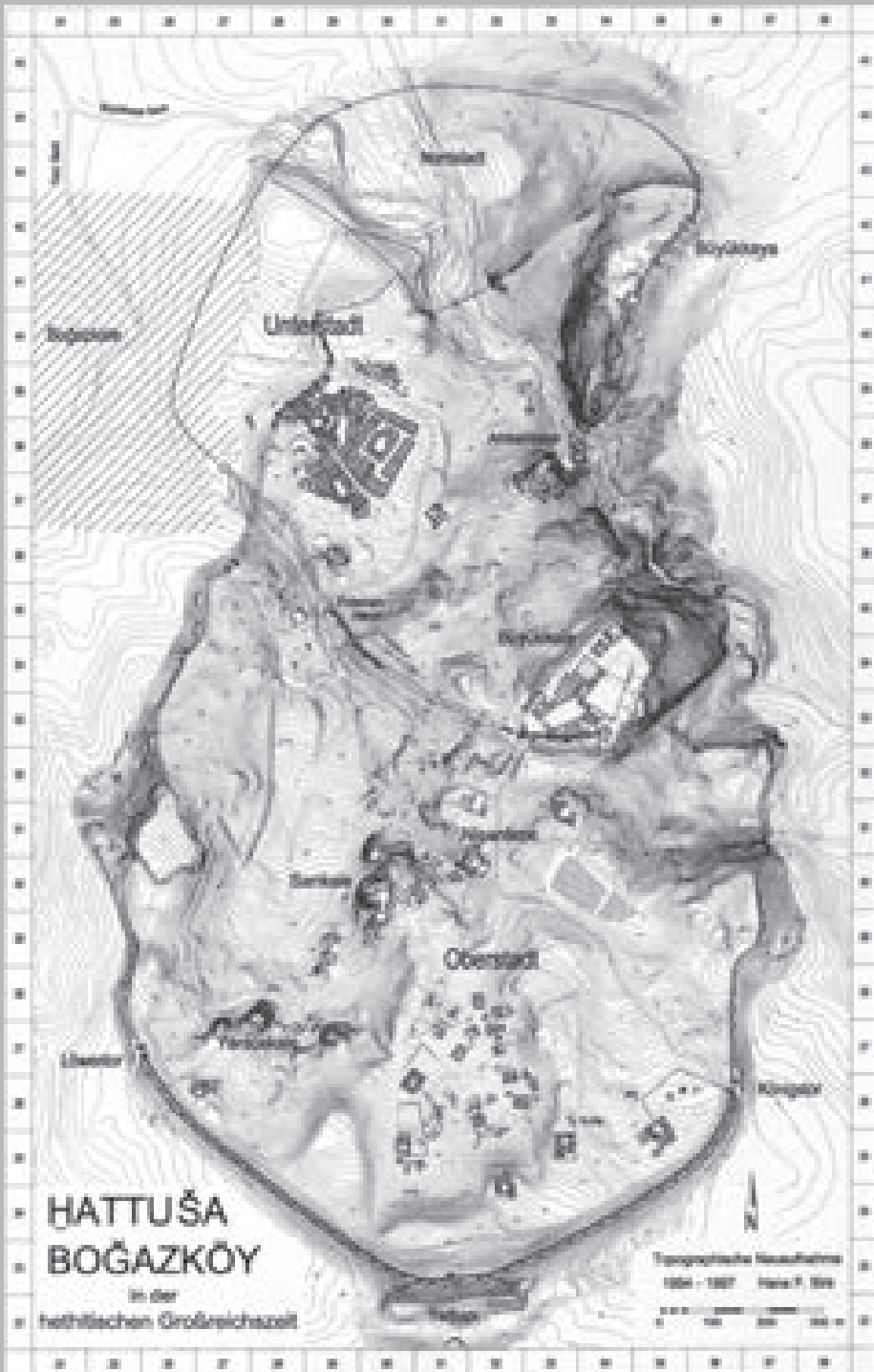
기때문에 도시를 파괴 하여 약탈 하고 그 지역에서 농업을 비현실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모든 지역에 풀씨를 뿌리게 했다. 이 것이 아니타에게 만족 하지 않기때문에 유명한 저주글씨를 쓰게 하여 말한다; “이제부터 누구나 하투샤에서 돌 위로 돌을 놓아서 건축물 지우면 하늘의 폭풍 신의 저주를 받기를 바란다.”

그러나 자신의 손자 인 하투실리가 히타이트 왕국을 세워서 하투샤를 왕국의 수도로 만들었다. 아나톨리아 및 메소포타미아를 지배 한 큰 제국에 하투가 450년 동안 수도로 되었다. (기원전1650-기원전1200)

히타이트족이 기원전1200년 경 가장 강력하고 그 시대의 초강대국 이집트 제국 하고 치열한 전투 했던 시대 후 여전히 알수가 없는 이유때문에 하투샤 수도를 떠나서 남쪽으로 이동 하여 역사에 소멸 했다. 남동부 아나톨리아 및 시리아 북쪽에서 작은 시국으로 잠시 동안 존속한 히타이트족 여전히 신비를 보존하는 문명을 남겼다.



스핑크스발견사진 (1907년)



실버 시티 하투샤

하투샤; 히타이트 언어로 실버 뜻으로 하투시(Hattuş)단어에서 파생되었다. 히타이트 점토 명판에서 하투샤에 대해 실버 시티로 이야기 한다.

하투샤는 지리적 위치로 크즐르르막(Kızılırmak) 강의 중부로 해당한 위치에 있다. 초룸 시 중심으로 87 Km . 앙가라 시 200 Km . 삼순 시 250 Km . 카이세리 시 220 Km . 요즈가트 시 36 Km . 카도키아 240 Km 거리로 위치 한다.

히타이트의 수천 신 있는 도시 하투샤는 1986년에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 유산으로 추가 되었다. 2001년에 유네스코에 의해 수만의 점토 명판이 존재 한 히타이트 명판 기록보관소로 세계 인류의 기억 리스트로 가입 되었다.

하투샤에서 최의 정착이 기원전 5500년 경으로 시작 한다. 금속병용 시대로부터 시작 한 정착지는 연속히 현재까지 계속했다. 가장 화려한 시기를 히타이트 시대에서 지내는 하투샤가 다음에 프리지아 . 갈라디아서 . 비잔틴 . 로마 . 셀주크 . 오스만 . 터키 공화국 시대에서도 정착지로 이용 하였다.



하투샤재건



하투실리III세이력서
하투샤(보아즈코이)
히타이트왕국시대기원전13세기

하투샤는 왜 중요 합니까?

“아나톨리아에서 조직이 든든한 국가를 세운 히타이트족은 행정 . 정치적 . 문화 . 건축 및 무술에 대해 역사에서 획기적인 여러 혁신을 하여 역사의 과정을 변경했다. 북쪽에서 카프카스 통해 아나톨리아로 오는 것으로 간주 된 히타이트족은 아나톨리아의 하티족(hattti) 통일 하여 아나톨리아 및 메소포타미아 개국을 지배한 거대한 제국을 설립했다. 그 넓은 지역에서 정치적인 단결을 하는 히타이트족이 과학 . 예술 . 문화 . 건축 . 사회 생활에 대해 혁신 통해서 매우 개발한 시스템을 설정 했다. 개발한 고급 문명 덕분에 수세기 동안 그들은 고대 월드라는 이 지역에서 지배 했었다.

처음으로 금속병용시대에서(기원전5000년 ~ 6000년) 정착지로 이용한 하투샤가 가장 화려한 시기를 히타이트 왕국의 수도로(기원전1650-1200) 지속했었다. 아나톨리의 중부에 바위 표면으로 지어진 하투샤; 아나톨리아 및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지배한 히타이트제국의 종교 . 정치적 및 행정적 수도로 고대 월드가 관리 된 도시 이다. 고고학적 발굴작업으로 발견 되고 있는 수만의 점토 명판 보관소 . 건축물 및 기념 구조물로 역사를 재다시 작성 하고 있다.”



역사의 최초 세계전쟁

현재 시리아의 남쪽에 있고 고대 시대에서 미타니(Mitanni) 왕국에 주인 누릇을 하는 이 지역이 최초 세계전쟁이 발생 한 지역 이다. 아나톨리아 . 메소포타미아 . 이집트 삼각의 교차로 지역이 세를 과시 하는 것이 자주 발생 했다. 미타니 왕국에 속하여 히타이트 제국에 세금 지급 했었다. 이 사항이 아시리아와 이집트 제국에 의해 자주 도발 하게 하여 지원 약속을 하여



완전한 독립 활동을 격려 하였다. 상대를 약하게 하는 이동 인 이 사항이 최최 세계전쟁이 발생 하는 원인이었다. 히타이트 제국과 아나톨리아 및 북부메소포타미아 위치하여 히타이트족에 속한 왕국 및 시국 및 이집트제국과 남부 메소포타미아에서 위치한 왕국 사이 발생 한 “카데시 전투”는 역사적으로 최초의 세계전쟁으로 이루어지었다.





평화의 도시 "하투샤" - 최초의 선언 평화조약 - 카데시- (기원전 1269)

잘 정리된 양국 사이 선언으로 체결 된 최초의 평화조약은 하투샤에서 발견 하였다. 고대월드의 2개 초강대국 인 히타이트 제국 및 이집트 제국 사이 아시 강 (Asi)주위 카데시 도시 주변에 히타이트의 대왕 무와탈리2세 및 이집트 파라오 람세스 2세 사이의 카데시 전투(기원전1274) 15년 후 체결 되어 선언 역사의 최초의 조약 인 카데시 평화조약은 우정.형제애. 불가침조약 이다. 조약의 점토명판은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서 전시 된다. 조약의 한 사본이 뉴욕에서 유엔 총회 빌딩 앞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전시된다.

최초의 하수도 및 큰 사원

체계적인 대규모 구조로 대 사원은 히타이트 및 하투샤 수도의 가장 신성한 장소이다. 현재에서 약 3,500년에 구축된 거대한 구조물이 여러가지 최초가 발생 하는 구조물이다.

왕이 대주교로 이끄는 종교 의식도 하는 이러한 거대한 구조물 시스템의 내부에 거리 및 골목이 존재 한다. 입장이 특별한 의식 및 유형무형 정화를 지내가서 실시 하는 사원 주위에서 역사의 최초 하수도 시스템 . 지하식수 시스템 . 식품 지하 저장고는 대형 엔지니어링과 기술로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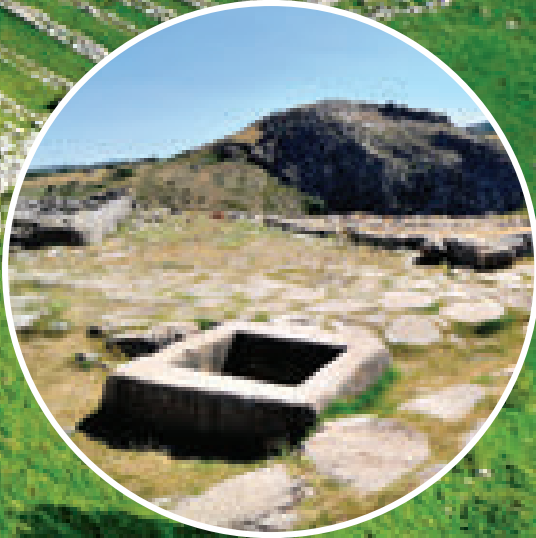






페수배관발견순간.

페수가테라코타배관통해집에서수집하여거리의하수구에연결되어있다.깨끗한물이중앙분수식에서제공되었다.





사자의문및배경에서예르카피(Yerkapi)



사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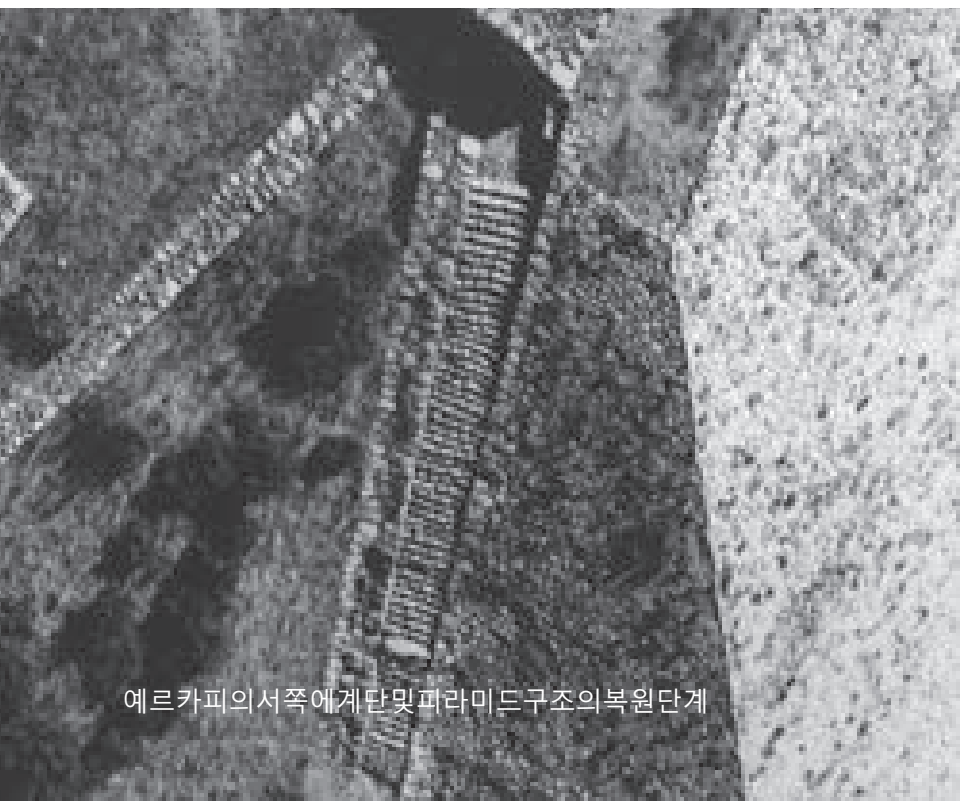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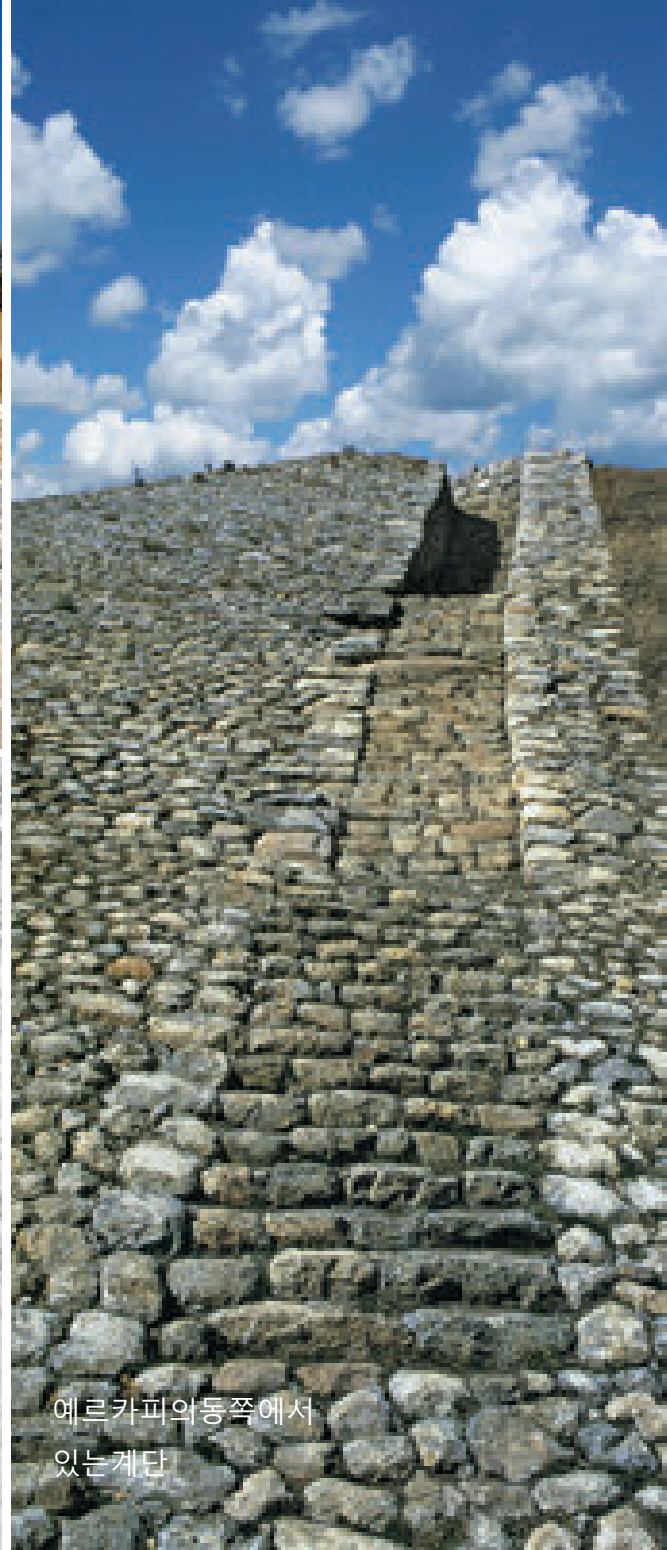
위쪽 도시의 남서부에 남쪽 성벽의 2가지 장려한 문 중 하나이다. 하투샤의 다른 도시의 대문에 있는 뜻이 이 문의 원래 문방의 양쪽에서 15x10 m. 규격으로 직사각형으로 2가지 타워가 있다.

큰 돌 블록으로 이루어지는 문턱 있는 내부 하나 외부 하나 문 통로가 있다. 이 문 통로는 외측이 청동판으로 덮여 큰 나무 문으로 덮여 있었다.

문이 자기 이름을 외측에 문턱 블록에 가공 된 2개 사자 동상에서 받는다. (머리. 가슴.앞다리) 소아시아에서 사자가 보호 및 장식품 용도로 대부분의 문에서 사용한 디자인이며 또한 힘을 상징 한다. 하투샤에서도 이 문 외 다양한 사원 입구 및 궁전의 문에서 사자 동상이 사용 하였다.

입문이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열려 있고 허가 밖으로 있고 눈이 위협적으로 응시 하는 사자들은 장려한 모습으로 보인다.





예르카피의서쪽에계단및피라미드구조의복원단계

예르카피의동쪽에서
있는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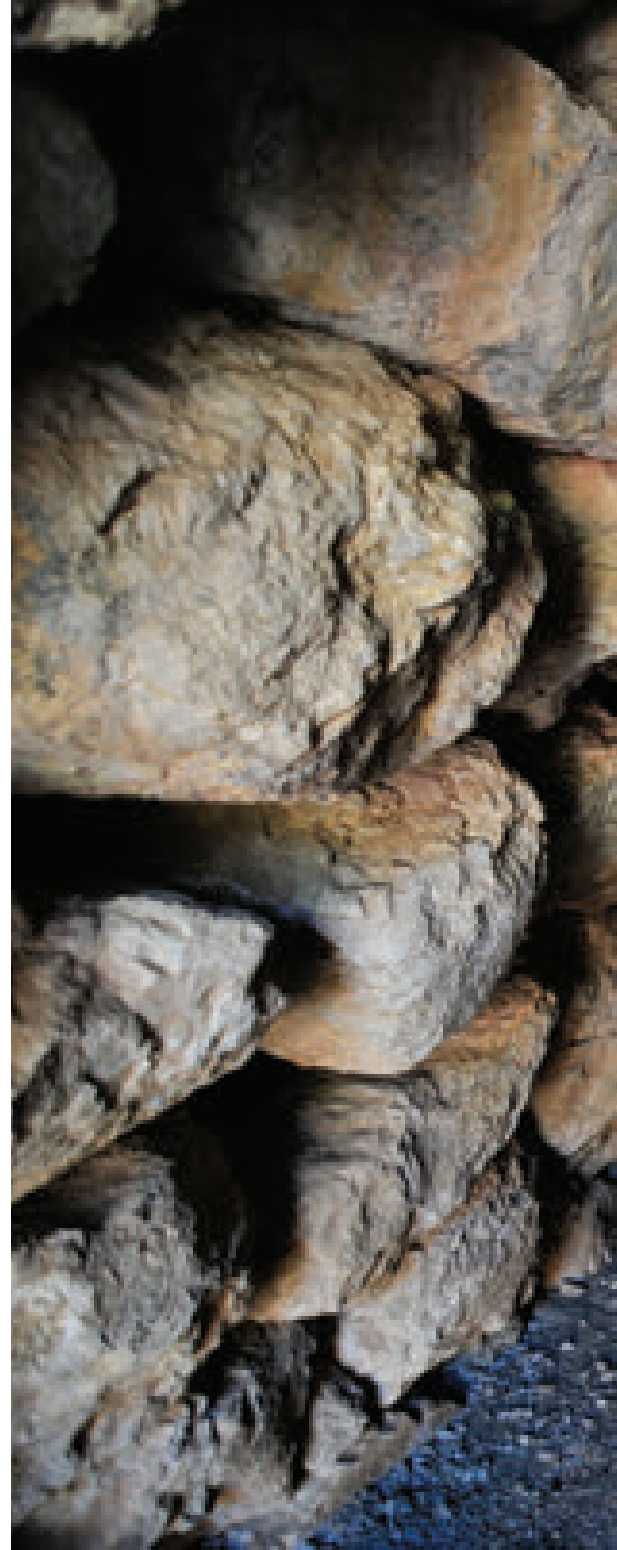
아나톨리아의 최초 및 고대 피라미드

도시의 남부에 있는 Yerkapi 성벽이 하투샤의 영광을 계시 한다. 비밀 통로 있는 성벽이라고 유명한 250 m 길이, 80 m 폭이, 35 m 높이 있는 이 구조의 표면은 완전히 석회암으로 덮여있다. 피라미드형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건축에 대해 이집트 효과가 있는 것을 표시 한다. 아나톨리아에서 지어진 최초의 피라미드형 구조 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신비한 지하 통로 “터널”

위쪽 도시의 가장 높은 위치에서 Yerkapı 및 스프링크스 문이 있는 복잡한 구조 시스템의 중간 점에 71 mt. 길이 있고 전부 벽도로 만든 터널은 또한 도시의 입구 중 하나 이다. 약 3500년 전에 만들어지고 아직도 현존하는 이 신비한 통로가 히타이트 제국 시대에서 여러 종교적 이나 문화적인 장식용으로 이용 하였었다.









스핑크스형 문

하투샤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Yerkapi의 가장 높은 곳과 중심에 위치하고 다음 세상의 보호 상징으로 알고 유명해진 4개 �핑크스에 의해 보호 한 신비한 문이다.

인간 머리 . 사자 신체 . 독수리 날개로 표시 하여 2개는 도시 입구로 2개 도시 밖으로 보고 있는 4개 �핑크스 존재 한다. 사자처럼 튼튼한 독수리처럼 자유롭고 인간처럼 똑똑 한 것을 대표 한다고 하여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최초의 �핑크스 이다.

1906년에 고고학적 발굴작업 시 발견 된 4개 �핑크스에서 2개는 현재로 존재 한다. 1907년에 복구 목적으로 발굴팀이 독일로 가지고 가는 하투샤 �핑크스 중 하나는 1924년에 반납 하여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서 전시 한다. 여러 원인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하투샤 �핑크스가 오랜 노력의 결과로 독일에서 반납 하여 2011년에 다시 수집 하였으며 원래 장소 인 하투샤에서 다시 만나게 하였다.







국왕의 대문

큰 성벽의 동부에 있는 이 문이 서부의 사자문 하고 동일 한다. 이 문에도 2개 각 2개씩 타워 및 그 사이에 2개 높은 문 통로가 보인다. 국왕의 대문 규격과 계획도에 대해 사자문으로 완전히 동일 한다.

그 곳에서 타워들이 약 10 x 15 mt 치수이다. 바닥에서 3,25 mt 폭이 있는 문 통로의 높이 5 mt. 되어 양쪽 날개 있는 큰 나무 문으로 덮여 있다.

정면 성벽측으로 계속 하여 문 앞선에 도달 한 도로 외부측으로 타워 있는 한 벽이 지어졌다. 따라서 보초들이 적에 의해 공격 시 양쪽에서 보호할 수 있었다.

국왕의 문에 있는 부조가 문의 외부 아니고 도시 방형에 내부에 있다. 고부조로 가공된 이 그림에서 한 전사의 무기와 함께 묘사 된다. 전사의 크기는 헬멧의 끝에서 발바닥까지 2,25 mt. 이다.

전사가 풍부한 장식품과 짧은 치마만 입는다. 넓은 벨트에서 손잡이가 초승달 모양이고 끝이 위쪽 방향으로 있는 짧은 검이 걸려 있다. 한 손으로 영광스러운 도끼를 잡고 있다. 도끼의 날이 완전히 뒤로 돌려 있고 또기 뒤쪽에서 가시처럼 돌출부가 존재 한다. 전사의 머리에서 상투가 있는 헬멧이 존재 한다. 긴 머리가락이 어깨에서 내려간다. 헬멧의 날에서 시작한 끈이 무릎까지 내려간다. 헬멧 앞선에 긴칼뿔이 있다. 헬멧에 있는 뿔이 신을 상징 하기 때문에 본 부조는 신 표현으로 간주 된다.





성형문자 있는 방 - 사후 로 열리는 문

궁전이 있는 큰 성의 남쪽에서 송배 기능을 하여 성형문자 비문에서 지하도시로 열린 문이라는 것이 쓰인 2번 그림, (성형문자 있는 방) 존재 한다. 히타이트 왕 수필룰리우마 (Šuppiliuma)2세에 의해 지어진 것이 간주 된 방의 벽에 있는 비문에서 왕의 조치 및 방의 기능을 설명 한 성형문자 비문이 존재 한다. 방의 가장 깊은 부분에서 태양신이 손에 왕 홀로 묘사 하였다. 비문의 반대편에서 왕 수필룰리우의 한 부조가 존재 한다. 방의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물 터 넓은 신비를 아직도 보유 하고 있다.





히타이트족의 궁전

히타이트 왕들이 국가를 현재 뷔위크칼레(Büyükkale)로 유명한 절벽 위로 세워지고 모든 개국을 봐줄 수 있는 점에서 위치한 궁전에서 지배 하고 있었다. 250 Mt. 길고 140 Mt. 폭이 있는 면적에서 35.000 m² 평방 미터 구조 시스템을 보유 하고 있었다. 왕국 궁전에 왕과 왕비의 왕좌 . 생활 했던 방 . 알현실 . 예배방 . 주방 . 창고 . 보관소 . 정원 및 행정 및 종교적 여러 부분에서 구성 된다.



최초의 헤타이로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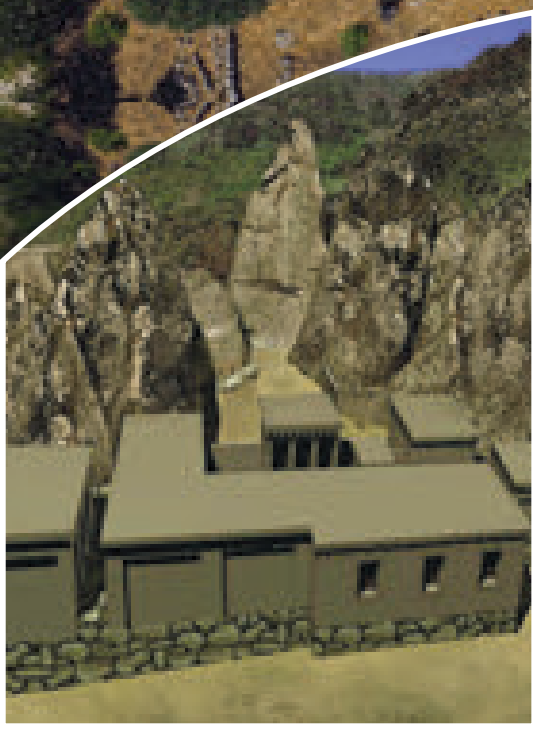
히타이트 궁전의 바로 옆에서 왕을 보호하는 임무와 왕한테만 명을 받는 별도의 병력부대가 배치 하였다. “골드 창기병”이라고 알려진 이 특수 부대의 다른 이름이 “네샤디(Neşadi)”부대 이었다. 특수 교육 및 장비로 발달한 부대는 왕과 함께 이동 하며 왕 및 왕의 가족을 보호 하기 위하여 특별히 선정된 병력으로 구성 된다.

최초의 야외 사원 - 야즐르카야

야즐르카야 야외사원은 건축건축 특징에 대해 세계에서 알려져 있는 최초의 예문 이다. 자연 및 가파른 절벽 사이에서 꼼꼼하게 건설 된 야외 사원이 2 부분에서 구성 된다.

수천 신이 있는 도시 하투샤의 90개 정도 신이 동시에 행렬을 행진 시 표시 된 바위 부조에 “신들의 행렬”라고 하는 것이 가능 한다. 사원의 속진 관련 업무 또는 장식을 실시 하는 A방에서 명절 행사가 마련 하여 B 방에서는 보통 저승에 관한 행사용으로 이용하였다. 이 특수 방의 입구는 지하생물을 표시한 2개 전설적인 악마에 의해 보호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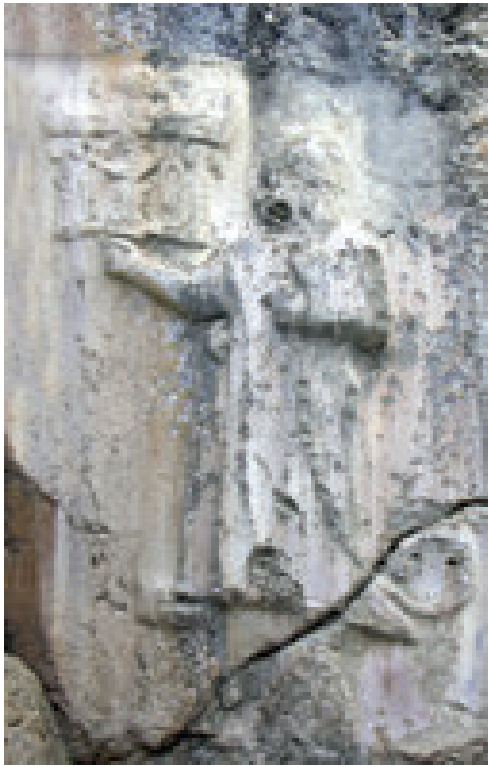




명절 행사가 실시 된 A방에서 히타이트족의 가장 거대한 신은 폭풍 신이라는 테슈프(Teşup) 및 아내 헤파트(Hepat) 1명 아들 및 2명 딸이 메인 무대에서 표시 된다. 이 무대에서 눈에 띈 그림에서 상위신 테슈프가 다른 2명 신의 위에 표시 하는 것이다. 신의 신 이며 가장 거대한 신이라는 것이 특별히 묘사 한다. A방의 왼쪽에서 남성 신들 있으며 오른쪽에서 여신들이 행렬을 행진 시 묘사 하였다.







A 방의 가장 화려한 부조는 야즐르카야 야외사원을 건설 시킨 투드할리아 4세(Tuthaliya)의 부조이다. 투드할리아 자신을 산 위에 신성한 옷과 묘사 시키면서 바로 옆에 있는 성형문자에서 이 사원을 아버님을 위하여 건설 시킨 것이 명시되었다.









저승에 관련 한 B 방에서는 정의 및 군신이 네르갈(Nergal)은 12개월 이나 지하 신이라도 알려져 있는 12신 및 투드할리야 4세의 보호의 신 사루마 (Šarruma) 에 의해 보호 되어 있는 것에 대해 3개 주요 부조가 존재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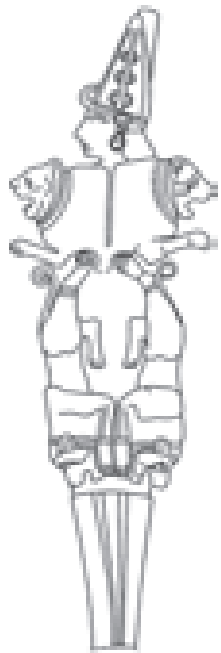
검의 신으로도 알려져 있는 네르갈은 가장 화려한 지하 신이다. B 방에서 한 검의 손잡이 위에 팔과 다리가 사자로 구성하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검이 땅에 갇힌 상태이며 지하를 지배하라는 것이 강조하였다.

12개월 또는 12 지하 신으로 알려져 있는 12신 그림은 행렬의 행진 시 묘사하였다.

투드할리아 4세는 자신이 저승에서 가장 거대한 신인 사루마에 의해 감시 및 보호될 것을 말할 것처럼 자신이 그 신의 팔에 묘사하였다.

B 방에서 바위로 조각된 3개 부분이 아마도 제단 구역이었다. 히타이트족이 시체를 매장 및 화장 방법으로 장례방식의 둘다를 적용했다. 제단 구간에서 화장된 시체의 유골이 보관되는 용기가 보관될 수 있는 바위 무덤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B 방에서 성형문자 비문 및 찾을 수 없는 동상의 받침대가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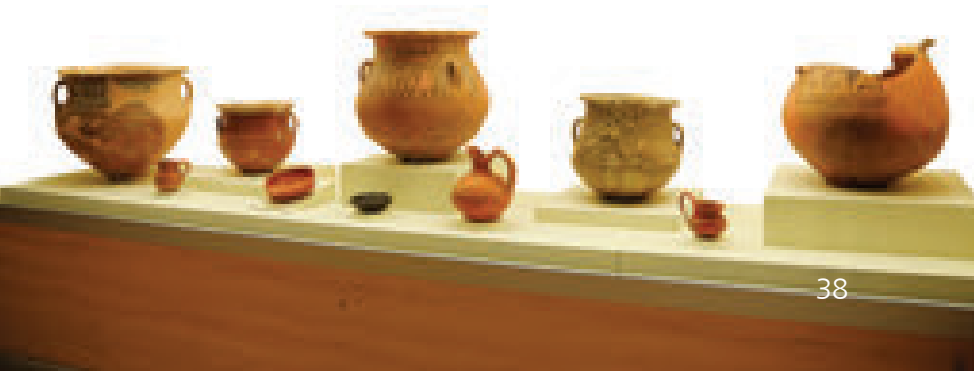






보아즈코이 박물관

1966년에 하투샤 발굴에서 발견된 작품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전시하기 위하여 열었고 2011년에 재건축을 한 보가즈코이 박물관이, 하투샤 발굴에서 발견된 작품들과 함께 방문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박물관은 보유하고 있는 역사적인 작품의 다양성과 함께 중요한 위치를 자리 잡고 있다. 여기서 전시한 설형 문자 점토판들과 도자기 작품들, 인장과 인장 무늬판, 금속 도구들, 독특한 꽃병과 스팅크스들이 특히 중요한 작품들이며 그 밖에 수 많은 작품들도 볼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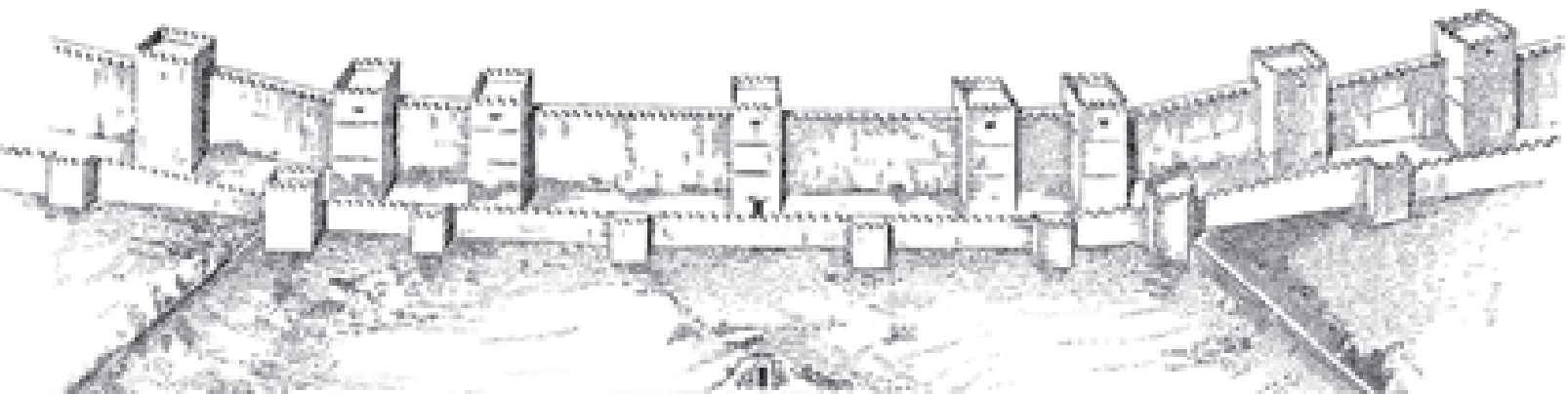
Hittit Dönemi Hititçe Periyot
M.Ö. 1450 - 1200 İ.C.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방벽

“히타이트 제국의 수도 하투샤; 0.76km² 면적 위에 세워진, 그 시대에 비하여 아주 거대한 도시이다. 안전이 우선이라고 여겨 가파른 절벽 위에 세워진 이 도시가 ; 내각과 외각 벽 체계로 구성되고 길이는 7km 정도인 성벽 체계에 세워져서 도시와 국가 중심의 안전을 가장 높은 수준을 올렸다. 유명한 중국 성벽(만리장성)보다 수천년 전에 세워진 이 성벽들이 비밀 통로와 높은 탑과 거대한 면적(넓이)으로 그 시대에 제일 발전된 방어 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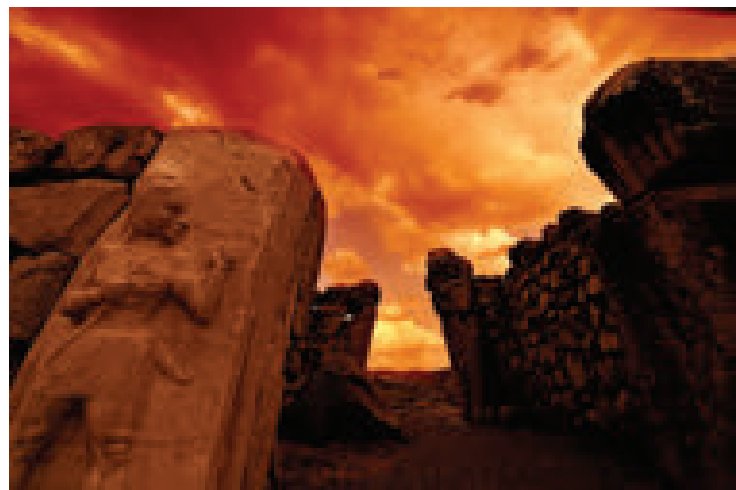






장엄한 도시의 문

하투샤 도시를 둘러싼 성벽 체계에 한층 더 안전이 제일 높은 수준에 있는 장엄한 입구 문이 세워져 있다. 이 문들이 수도인 하투샤에 온 방문들에게 도시의 장엄함과 아름다움을 도시에 처음 방문했을 때 보여주며 세워진 특징뿐만 아니라 그 외 상징적이고 종교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 아슬란르 문, 에르 문, 크랄 문, 스펀슬리 문이 하투샤의 볼만한 가치있는 기념적인 문중이 하나이다.



“장소는 봉인 되었다”

수도 하투샤가 가지고 있는 성벽 위에 세워진 더욱 더 장엄한 도시의 입구 문에서 실현된 의식의 흔적들이 현재까지 전해진다. 수도 하투샤에서 저녁마다 도시의 모든 문이 닫혀지고 봉인을 해서 도시의 입구와 출구들이 봉쇄된다. 아침에 문을 열기 위해 온 담당자들이 만약에 봉인이 이상인 것을 본다면 밤에 하투샤에 외부인들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랫동안 실행한 이 전통이 현재까지 “장소는 봉인 되었다”라는 관용구로 전해지고 지역 국민들로부터 아직도 쓰여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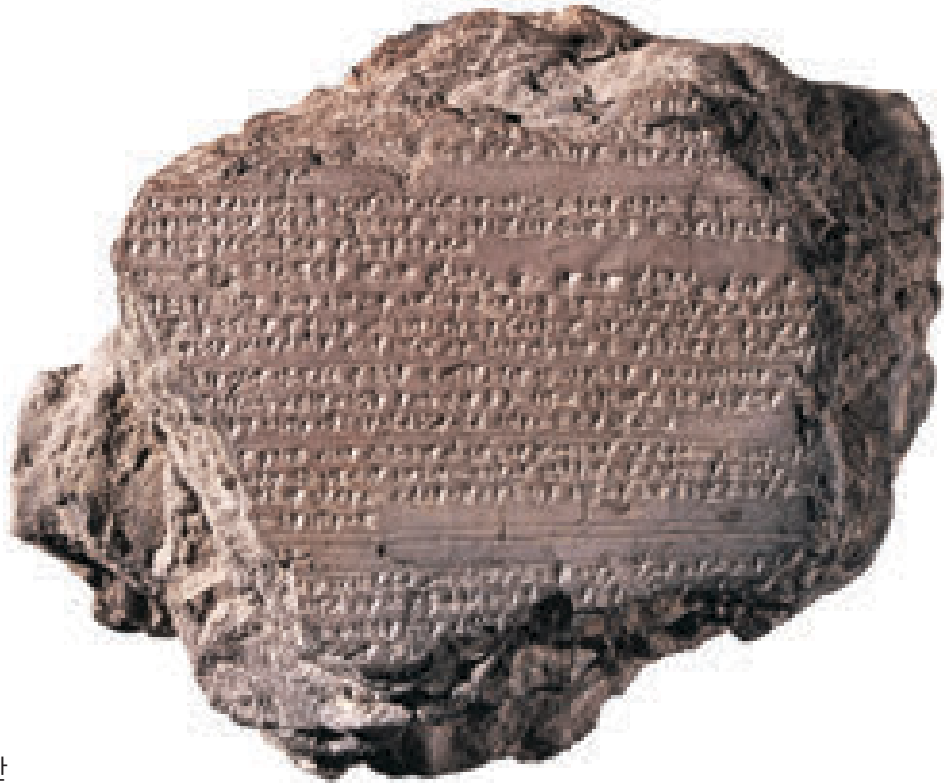


아니타의 저주

히타이트 왕조의 최초의 공식적인 왕인 하투실리 1세, 하투샤에 있는 거지 지역을 공격하고 불 태우고 파괴하고 지역에 잡초 씨앗을 심은 아니타의 2세대 자손으로 "저주의 서"에 의하면 약 100년 쯤 후 도시가 새롭게 세워지고 자기 이름을 하투샤인 이라는 의미가 있는 하투실리로 바꾸어서 히타이트 제국의 최초의 틀을 정립했다. (기원전 1650)

하투실리의 조부인 카네스 왕 아니타의 기록 문헌과 고고학 발굴 때, 또 하투샤에 있는 "저주의 서"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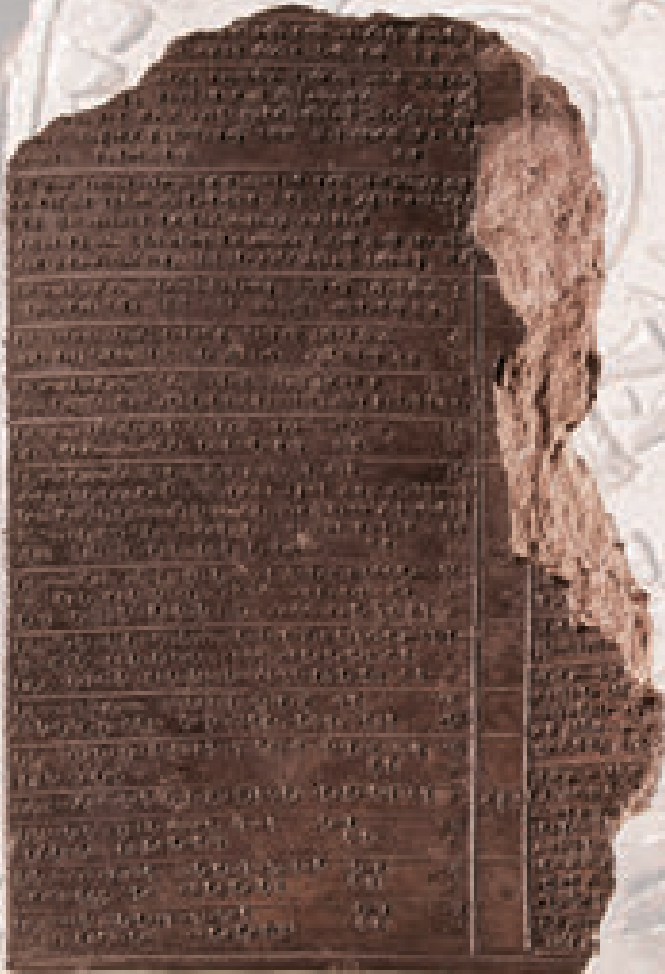
"밤에 했던 공격으로 도시는 정복했다. 대신에 야생 잡초를 심었다. 나 다음에 누가 왕이 되어 하투샤에 다시 정착하면 하늘에 있는 폭풍신의 저주가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을 바란다."라고 쓰여져 있다.



아니타 점토판
하투샤(보가즈코이)
옛날 히타이트 시대(기원전 1600년 대)

최초의 왕좌 계승자 시스템 - 텔리피누 법칙들

텔리피누 법칙들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왕좌 싸움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칙들로 죽은 왕 후에 왕좌에 누가 앉을 것인지 아주 투명하고 확실한 순서로 정해져 있다. 히타이트 제국에서 예전에 생긴 왕좌 싸움들 때문에 나라가 힘을 잃고 분열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쓰여진 법칙 문헌들이 역사에서 최초의 번째 본보기로 의도치 않게 보여준다.



H히타이트법이쓰여있는점토판문서
하투샤(보아즈코이)
고대히타이트시대기원전 16세기
히타이트언어



천 신이 있는 도시 하투샤

히타이트 설형 문자 점토명판에서 “천 신이 있는 하투샤”라는 표현이 자주 눈에 띈다. 히타이트인들은 종교적인 믿음을 존경하고 신화의 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의 공동체이다. 종교적인 의미에서 관대함을 제일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도시가 수도 하투샤이다. 히타이트인들이 신들에게 숭배 및 존경에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너무나 조심하면서도 전쟁 후에 정복한 지역에 있는 신앙을 유지하도록 했다. 그들이 기분 상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분노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위한 신전을 만들었다.

투드할리야 4세 시대에서 히타이트인들이 모든 신들을 수도 하투샤에 모았다. 수도에 이 신들을 위한 신전을 세우고 하투샤를 통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종교적이고 신성한 하나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이 덕분에 나라 전체가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하나로 만드는 것을 이루었다.

히타이트 명절 행사

히타이트인들과 천개의 신이 있는 도시 하투샤는 동시에 명절과 종교 의식의 도시기도 하다. 히타이트 기록 문헌에서 나온 30개 이상의 명절이 있다. 이 명절들의 날수가 188일 쯤이다. 이 명절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야즐르카야 개방형 신전에서 축하하는 안-타흐-숨-사르(크로커스 명절)와 푸릴리아 봄 명절이다.





정해진 달력에 따라 해마다 서로 다른 시간에 규칙적으로 실행하고 큰 준비 결과로 실현되는 명절들이 번영과 풍요, 비, 동물들의 확산, 왕의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 종교적인 정화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하는 신들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종교적인 의식이다. 히타이트에서 제일 큰 명절들이 일반적으로 하투사에서 시작을 하고, 이 명절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도시들에서도 축하를 하면서 모든 나라에 확산되어 간다.





최초의 저장소(곡물 저장고)

히타이트인들은 경험했던 재앙과 나쁜 사건들로부터 교훈을 얻어 미래를 보장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아나톨루에서 경험했던 큰 가뭄과 그 후에 경험했던 기근에 따라 이집트 제국으로 곡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배로 밀을 요청해야 할 수 밖에 없었다. 가뭄 기간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시에 정해진 곳에서 땅 밑에 비밀스러운 아주 큰 저장





뷔웁카야에있는곡물사일로의석재포장된바닥



탄화 밀



대사원내부에있는식품도자기및저장방 (1980년때)

고들을 만들었다. 땅 밑에서 특별한 기술로 석벽사이에 만들었던 저장고들을 만들 때 구은 흙으로 만들어진 큰 용기들도 이용을 하였다. 히타이트인들은 발전된 이 기술로 밀과 다른 건조시킨 콩 같은 식량이 상하기 전에 여러 해 동안 보관할 수 있는 거대한 저장고를 가지게 되었다. 수 만명이 오랫동안 식량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저장고 시스템이 고고학 발굴에서 발견 되었다. 저장고들이 발견되었을 때 아직도 안에는 몇 톤의 밀, 보리 및 귀리같은 곡물들이 있었다.



최초의 역사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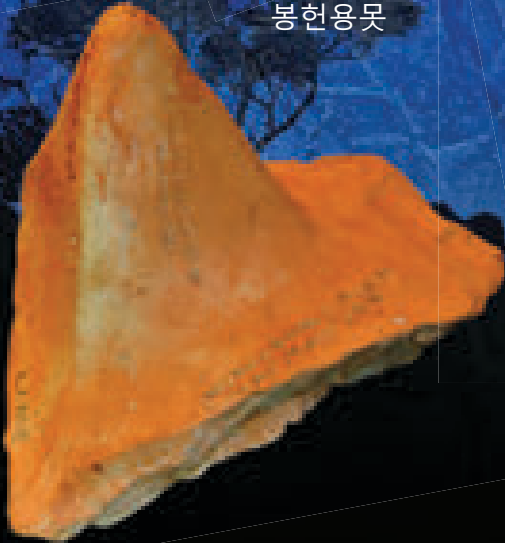
히타이트의 가장 큰 설형문자 비문 보관소가 하투샤에 존재한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고고학 발굴에서 3만 이상의 점토명판 및 3천 이상의 도장(인장)이 발견되었다. 하투샤에서 발굴된 점토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따르면 세심하게 제작되어 구워진 점토판들을 체계적으로 보관한 것을 알게 된다.

모든 히타이트의 왕들은 아날(ANAL)이라고 칭하는 연대기에 자신의 통치 기간 동안의 모든 활동을 세세하게 기록하여 보관시켰다. 그에 따라 왕국의 역사를 기록하는 책임자들은 왕국의 국민들에게 너무나 존경받는 사람으로 여겨졌다. 히타이트 왕들 중 무르실리(Murşili) 2세는 본인이 만들었던 규칙들과 국정 활동의 연간 흐름까지 기록하게 하여 연대기(아날) 통해 역사 기록사에서 보다 앞서 있었다.





봉헌용못



간을통해길흉판단예문

점 및 마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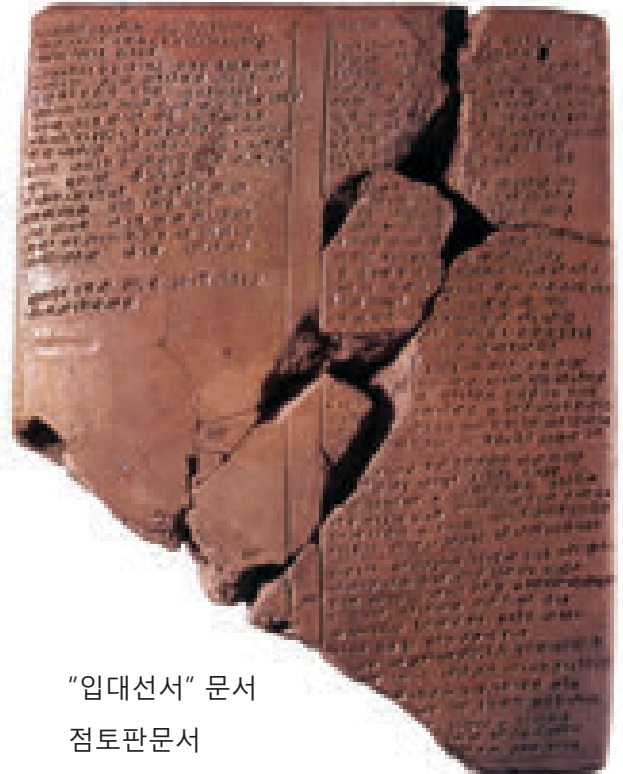
하투스야의 점토판 보관물에서 제일 많이 자주 보이는 다른 점이라면 점에 대한 기록이 있는 점토판이다. 히타이트의 삶에서 점과 마법은 자두 대두되는 주제인 것은 역사적 기록뿐만 아니라 신화적인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다.

히타이트 신들을 위해서 제물로 희생된 양에서 여전히 생기를 띄고 있는 간을 통해 보는 점 관련 점토판들이 자주 보인다.



최초의 군사 계급제를 실현

군사 계급의 최초의 탄생은 히타이트부터의 유산이다. 모든 신, 왕과 지휘관의 중요성 및 계급이 머리 위에 쓰여진 모자의 뿔 장식에 의해 정의되었다. 뿔의 갯수가 얼마나 많은냐에 따라 그에 따른 계급을 가지고 있었다. 히타이트에서 영향을 받아 그 이후에는 이집트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이 실현되었다.



“입대선서” 문서

점토판문서

하투샤(보아즈코이)

히타이트왕국시대, 기원전 13세기

히타이트언어



최초의 사랑의 여신 : 아쉬타르(ISHAR)

그리스 신화의 에로스(Eros)나 이집트의 하토르(Hathor)와 같은 이름으로 칭하는 사랑의 신과 여신들에 관한 최초 묘사들이 이들 국가로 부터 수백년 전에 존재하던 히타이트 시대에 사랑의 여신인 "이쉬타르"로 여겨지고 있다. 중요한 위치를 가진 이쉬타르 ; 야즐르카야 개방형 신전의 바위에 부조로 조각된 곳에서 날개를 달고 한 쪽 다리가 나체로 묘사되어 신들 가운데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



최초의 여성의 권리와 히타이트에서의 여성의 중요성

고대의 세계 문명에서는 일반적으로 가부장적인 가족 구조때문에 여성들은 항상 뒷전이였다. 하지만 히타이트인들이 이 인식을 바꾸고, 여성들이 사회 생활 속 뿐만 아니라 정치적 활동에서도 활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히타이트 여왕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많은 기록 문헌들이 지금까지 전해진다. 히타이트에서 여성의 사회적 위치 및 가지고 있는 권리가 히타이트 법률로 보장되고 있었다. 히타이트 여성들이 관리 및 정치적 활동에서도 활발적으로 활동을 하였다. 법률 재판에서의 참여와 같이 외국과의 관계에서도 발언권이 있었다. 모든 공식적인 것과 종교적인 행사에서도 의전의 위치에 자리잡고 있었으며 대표자로서의 권리를 끝까지 사용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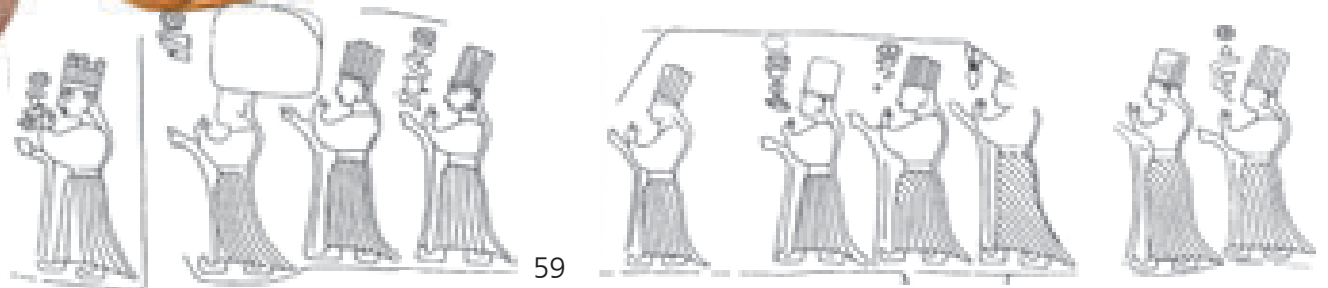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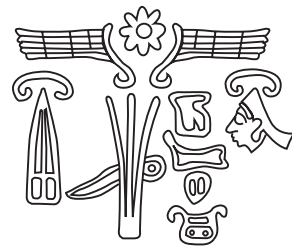
히타이트 법에서 처벌 및 피해자 입장에서 여성이나 남성의 차별이 없었으며 죄에 따른 처벌이 평등하게 이루어 졌다. 여성들이 삶의 모든 분야에서 활발적으로 활동했다. 예를 들어 수녀, 의사, 농부, 예술가 및 다양한 직업에서 여성들이 활발적으로 활동했다는 것을 기록 문헌에서 알 수 있다.

국가 운영에 있어서 국제 조약을 포함해서 왕의 인장과 같은 "타완난다" 로서 여왕의 인장도 조약이 유효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하는 것이었다. 많은 문명에서 보이지 않는 여성 신(여신)의 형상이 히타이트 신화에서는 많이 보인다. 야즐르카야 개방형 신전에서는 수 많은 여신의 공식적인 행사가 있었다는 것을 그림으로 볼 수 있다.

혼인에 있어서 소유하고 있는 유산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혼할 때 여성의 삶을 보충할 수 있는 지불(위자료 같은)이 기록 문헌에서 볼 수 있으며 여성의 권리에 대한 입장에서 처음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었다.



하투실리-푸두헤파도장



최초의 부동산 권리 증서(부동산 소유 증서)

히타이트에서 모든 토지가 국가를 통치하는 왕에게 속해 있으며 왕이 토지를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줄 수 있었다. 처음으로 히타이트에서 적용되고 후 년에 많은 문명에 의해 이용된 이 토지 시스템의 운영은 히타이트에서는 어김없이 기록되어 규제하고 있었다.

발굴된 고고학 발굴지에서 양면으로 만들어져 있는 수 많은 토지 증여 서류가 발견되었다. 토지의 위치, 면적 및 누구에게 얼마나 양도가 되어 있는지 확연히 드러나 있는 이 문헌들 가운데는 인증이 있어서 부동산 소유 증서같은 서류였고 역사에서 처음으로 히타이트에서 보여진 것이다.



최초의 욕조

히타이트 사회에서 물은 신성한 것이다. 물로 몸을 청결히 하는 것과 청소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의무중 하나이다. 발굴된 고고학 발굴지에서 히타이트 시대에 속한 수백개의 욕실 욕조가 발견되었다. 흙으로 구워 만든 것과 안에서 앉을 수 있는 자리고 있으며 물이 빠지는 배수구가 있는 욕실 욕조가 거의 모든 히타이트의 집에서 존재하고 있었다. 히타이트인들에 의해 제조되어 사용되었던 욕실통(욕조)이 '보가즈코이 박물관'에서 여전히 전시되어 있다.



금속 가공을 선도한 민족

히타이트 수도 하투샤에 있는 광산업과 금속 가공 도구들은 히타이트 문명이 이 분야에서 앞서 있으며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생활하는 시대에 따라 고급 수준의 도구들을 발전시켰다. 발을 사용하는 풀무를 이용해 높은 온도를 달성할 수 있었으며 높은 온도에서 녹인 금속을 거푸집(틀)에 부어 제조하는 특별한 금속 가공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다. 금속 제품들은 전쟁무기부터 장식이나 보석까지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히타이트 신화

히타이트인들의 지역 숭배 센터에서는 많은 신과 여신들을 위한 다양한 종교적 의식이 주최되었다. 판테온에서 정확하게 천개의 신이 있다는 것은 확연하게 히타이트에 의해 다양한 점토판에서 드러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굴된 고고학 발굴지에서 설형 문자로 쓰인 책들에서 6백개 이상의 신이 이름이 발견되었다. 히타이트인들이 새로운 땅을 정복할 때마다 신의 수가 늘어났다. 이들 중에서 메소파타미아, 하티, 후리, 루위 및 팔라 지역에서 시작된 신과 여신 들고 있었다. 이 신과 여신들이 들어가 있는 많은 신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진다.



히타이트에서 태어난 사리진 신 텔리피누 (TELIPĪNU)

히타이트의 신 텔리피누는 왜인지 확실히 알 수 없는 이유로 하티 국민들에게 분노하여 나라를 버리고 떠나 버렸다. 텔리피누가 너무나 분노 했기에, 오른쪽 신발을 왼쪽발에, 왼쪽 신발을 오른쪽 발에 신을려고 했다. 이 상황은 텔리피누의 분노를 더욱 더 크게 만들었다. 분노한 신은 그 나라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도록 떠나 버렸다. 이러한 이유로 나라에 있는 풍요와 축복이 끝나 버렸으며 번영을 잃어버렸다. 농축산이 쇠퇴하기 일보직전이었고, 기근이 시작되었다. 동물들과 사람들이 불임이 되었으며 수원지와 숲들이 마르기 시작했다.

히타이트인들은 나라에 있는 이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신 텔리피누를 사방으로 찾기 시작했다. 그 신을 위해서 제물을 받쳤으며 기도도 했지만 어떠한 방도로도 신 텔리피누를 찾지 못했다. 그리하여 다른 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하티 국민들을 안타깝게 여긴 태양신이



텔리피누를 찾기 위해서 독수리에게 임무를 주었다. 독수리는 " 높은 산위를 스치듯 높이 날았으며 깊은 골짜기 사이를 들어가 누비기도 하며 바다의 푸른 파도 위를 스치듯 지나갔지만 송고한 신 텔리피누의 흔적조차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며 좋은 성과 없이 돌아왔다. 신 텔리피누는 사라져 버린 것이었다.

마침 희망이 없어질 때쯤 신 한나나가 벌에게 임무를 주었다. 벌은 사라진 신 텔리피누가 자고 있을 때 찾아서 벌침을 쏘아 깨웠다. 신 텔리피누는 화가 났지만 벌이 꿀을 주면서 신 텔리피누를 진정시키며 설득시켜서 나라에 돌아가겠금 하였다. 그리고 나라 전체의 삶은 다시 정상적으로 되돌아갔다.



신의 탈 것 “후리(HURRI) 및 쉐리(ŞERRI)”

히타이트의 믿음과 신화에서 제일 큰 신으로 인정되는 테숨을 태우는 마차를 끄는 성스러운 쌍둥이 황소의 이름이다. 황소 중 하나는 선함을, 다른 하나는 악함을 상징하며 주신 테숨은 선함 뿐만 아니라 악함도 다스린다. 또한 설화에 따르면 12개의 신이 1년 안에 있는 12개의 달을 상징하는 것처럼, 후리와 쉐리도 밤과 낮을 상징한다.



최초의 장난감들

게임 및 장난감 역사가 아주 옛날시대부터 시작되었지만 히타이트인들에 의해 그 전과는 조금 다르고 중요하게 여기며 예술적으로 승화시켰다. 아이 무덤에서 발견된 호루라기같이 소리내는 악기들이 발견된 것이 그 시대의 장난감들이 게임 목적 뿐만 아니라 나쁜 혼(영혼)이 오는 것을 막는 용도로 쓰여지기도 한 것을 보여준다. 히타이트인들에 의해 흙으로, 돌로, 뼈로, 점토 및 금속으로 만든 수 많은 아이 장난감이 지금까지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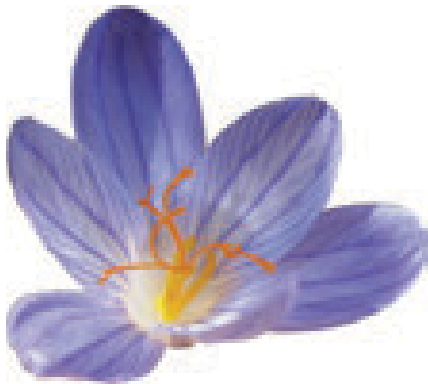
이것들 중에서 제일 신기한 것은 핀들에 의해 관절이 서로 연결된 사람과 동물로 된 로봇 장난감이다. 관절이 작은 핀으로 연결되는 이 로봇 장난감들은 사람과 동물처럼 움직일 수 있었다.





보아즈칼레의 자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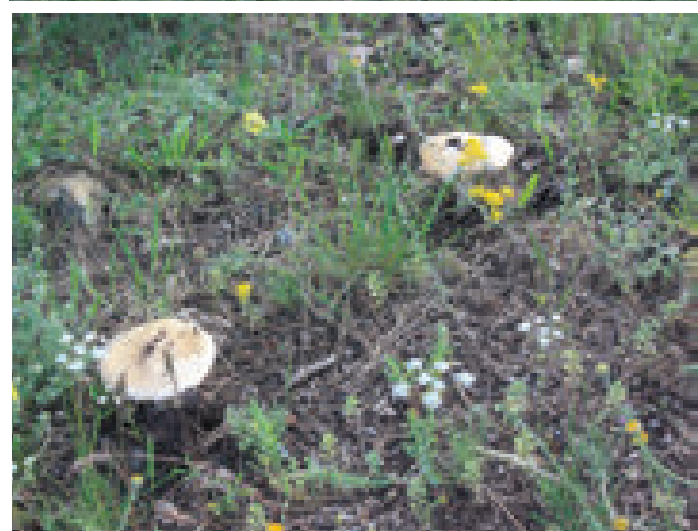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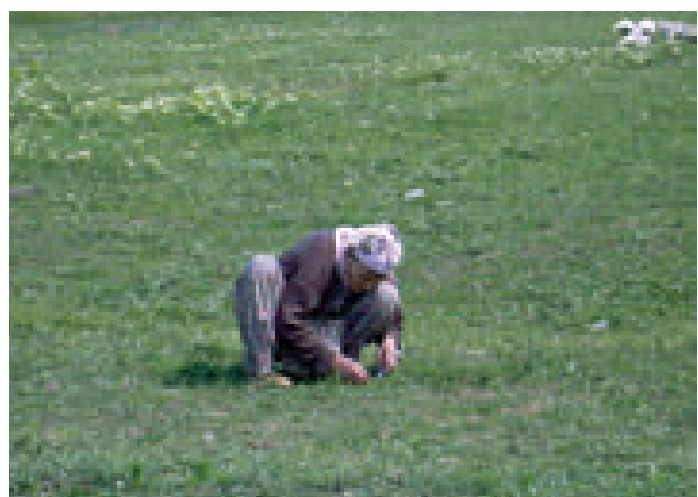
보아즈칼레는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사람을 매혹시키는 지형을 가지고 있다. 하타이트에서부터 현재까지 물이 전혀 줄어들지 않는 부다교주 개천은 평원에 삶을 가져다 주고 있었다. 녹지대 속에 있는 작은 폭포들이 있는 카알르보아즈 협곡은 볼만한 곳이다. 여기에 있는 호슈르 폭포는 물이 바위를 조금씩 깎으면서 자기만의 모양을 만들었으며 필히 볼 필요가 있는 유형의 희귀한 자연의 아름다움이다.





봄은 하투샤에서 조금 더 특별하게 아름답다. 크로커스들과 야생 히아신스가 보아즈 칼레를 신부같이 꾸며준다. 참나무 숲에서 다양한 버섯을 채집할 수 있다. 철새들과 야생화로 하투샤는 마법에 걸린 것처럼 변해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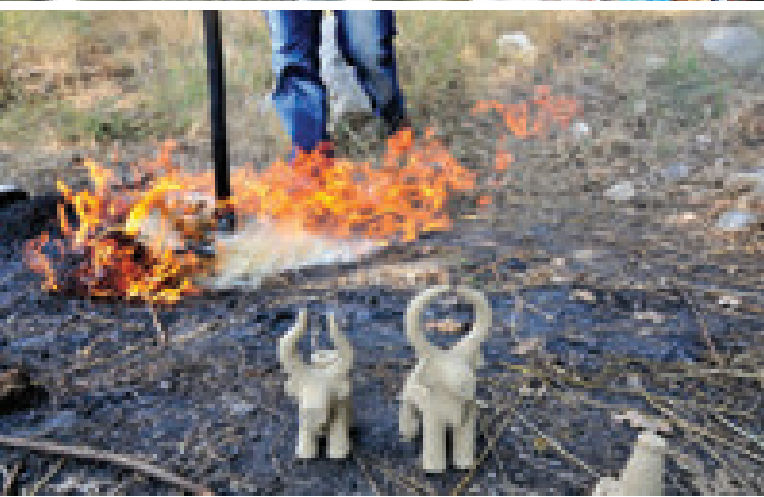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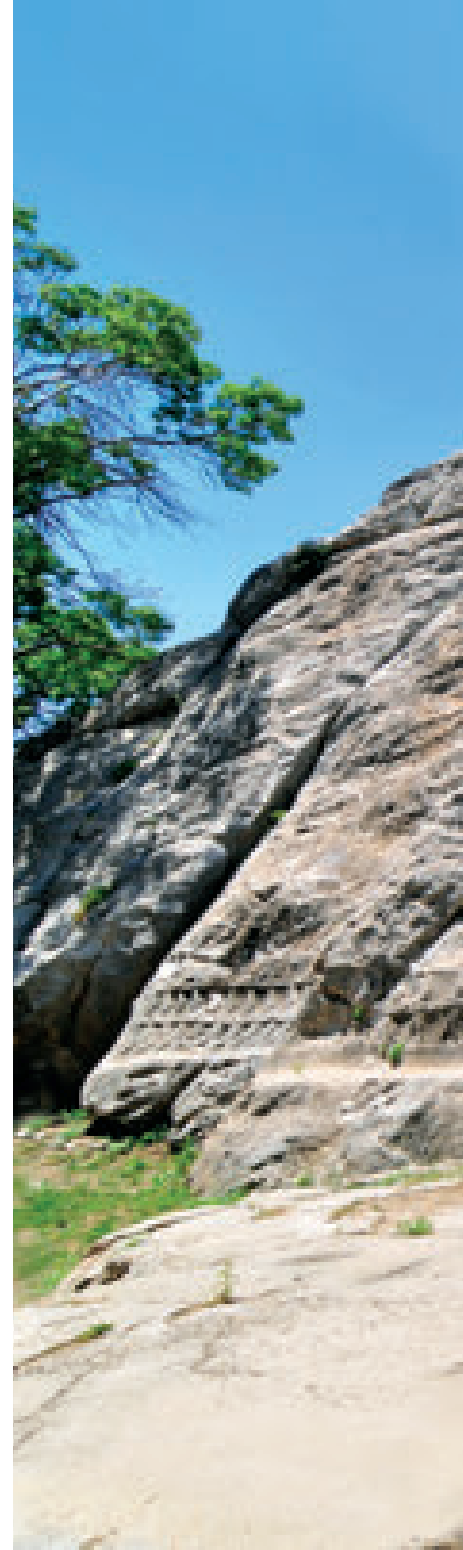
여름이 찾아오면 보아즈칼레(하투샤)를 방문하러 온 방문객들과 반 딘을 틈이 없이 분
빈다. 많은 나라로 부터 온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하투샤...작고 다정한 보아즈칼레 지구는 활발
해지기 시작한다. 유적지, 시장, 길거리에서 국내 및 해외에서 방문객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구경하면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녹옥은 대사원에서 존재한다. 색상 및 반짝반짝 빛나는 표면 때문에 눈에 띈다. 사람들이 이 돌에 대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냐 이집트에서 보내졌거나 외계인이 가져다 주는 많은 소문을 하고 있다. 이 소문 중에서 가장 흔한은 이 석재를 만져서 소원을 하는 것이 수용된다는 것이다. 대사원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이 석재를 만져서 소원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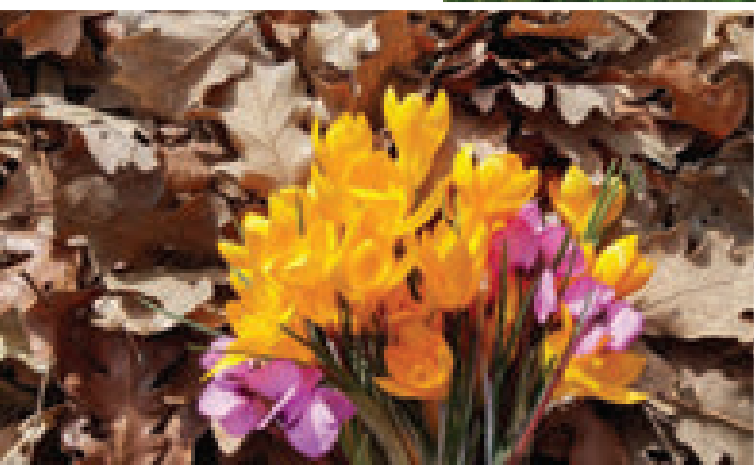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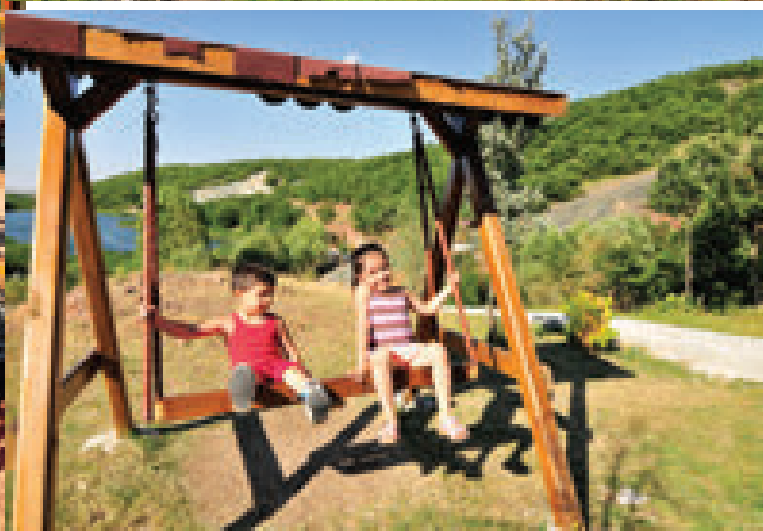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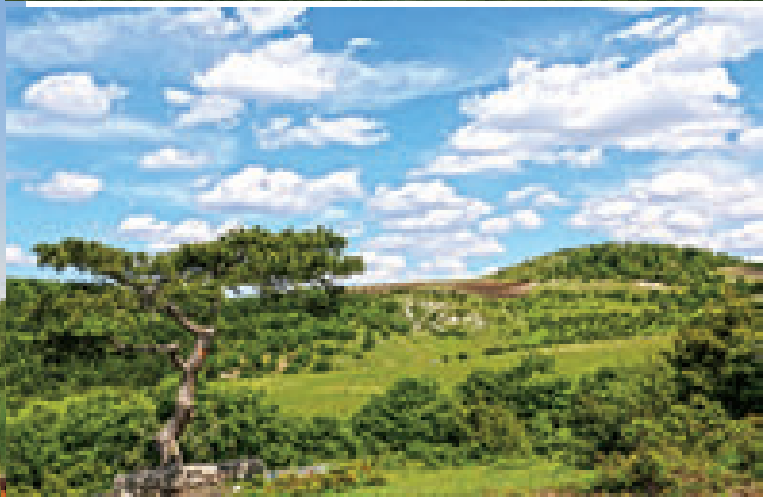
역사속에서 제일 최초의 개방형 신전인 야즐르카야는 조용하고 평화롭다. 고요함 속에 석공의 작은 조각 소리만 들릴 뿐이다. 석공의 주위에 모여든 관광객들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작은 조각칼로 인해 완성되어져 가는 작은 조각을 감상하고 있다. 그 지역 젊은이들에게는 돌을 조각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직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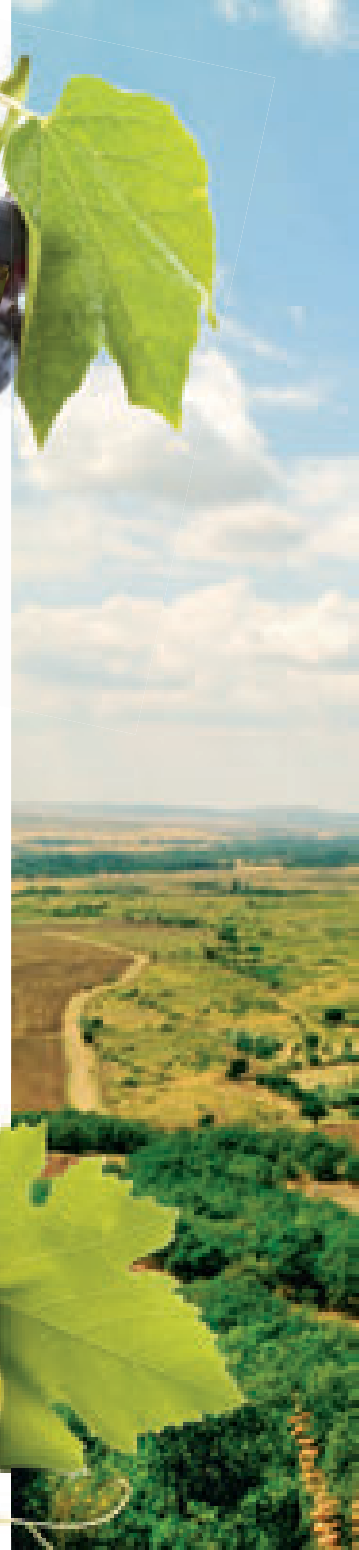
이빅참(ibikçam) 연못과 산책 코스는 참프나르 숲과 고원 및 산에서 내려온 아주 깨끗한 샘물로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연과 함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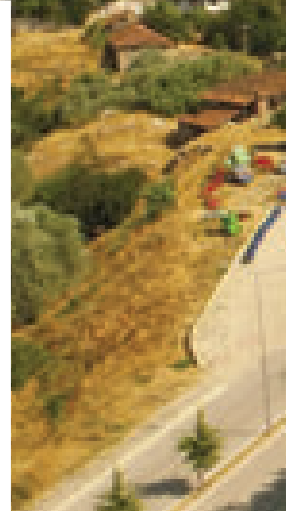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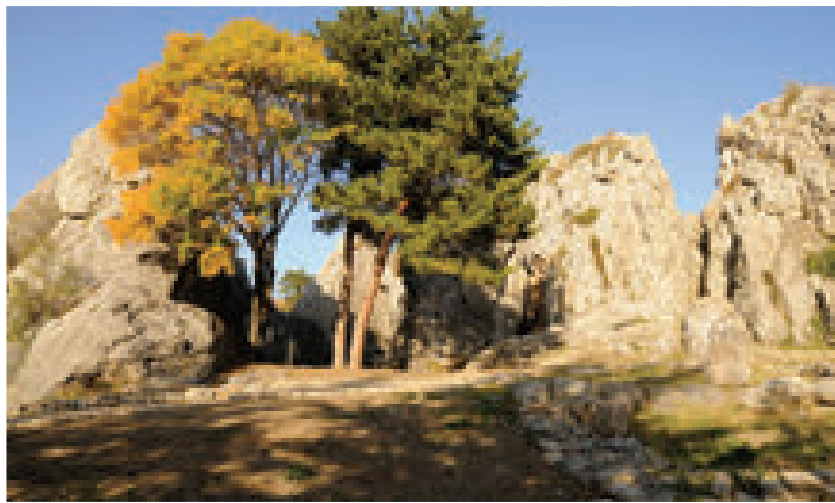




회케(Höke) 포도원의 역사가 히타이트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설화도 있다. 여기서 자라난 야생 포도와 이 포도로 만든 조청이 그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것보다 더 맛있게 느껴진다. 옛날에 여기서 추수기 행사를 했다는 것, 창던지기, 씨름 및 활 쏘기 등의 여러 대회가 있다는 것이 구전으로 전해졌다. 옛날 만큼 잘 손질되고 넓지 않아도 현재까지 약 1000데카르 땅에 호케 포도원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만약에 보아즈칼레를 가을에 구경한다면 모든 종류의 노란색을 볼 수 있으며 아생에서 자란 배(야생 배), 블랙 베리, 산사나무 열매 및 블루 베리같은 자연의 맛을 시식할 수 있다. 참나무 잎이 떨어지질 때 즈마법과 같은 분위기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며... 이 계절에는 특히 이빅참이 볼만한 가치가 있는 장소 중 하나이다.







겨울, 눈으로 덮힌 하투샤...이 도시는 아주 오랜시간 동안 봄 맛이 축체를 할 것이다. 지금은 자고
실 시간이다. 유리같이 투명한 겨울 하투샤의 아침은 하루의 최초의 빛살을 맞이하면서 깨어난다. 하투샤의
겨울은 도시의 제일 높은 곳인 스펀슬리 문에서 부터 쪽 뻗어나가는 골짜기로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나
오는 도시에, 효케 포도원에, 부다코쥬 골짜기에 인사하며 봄에 대한 기쁨과 그리움으로...



역사적인 돌카디르오울라드 여관

도시의 시내에 올 때면, 약 400년 역사를 가진 오스만 건축 양식을 가진 2개의 여관의 장대함에 매료된다. 이러한 여관들이 돌카디르오울라드 공국(영주국)에 속하는 돌아르슬란 가족으로 부터 내려져온 것이다. 8000m² 땅위 세워진 역사적인 여관들은 정원들로 인해 자연적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남녀구분이 되어 있는 2개의 여관 및 터키식 목욕탕(하맘) 뿐만아니라 넓은 정원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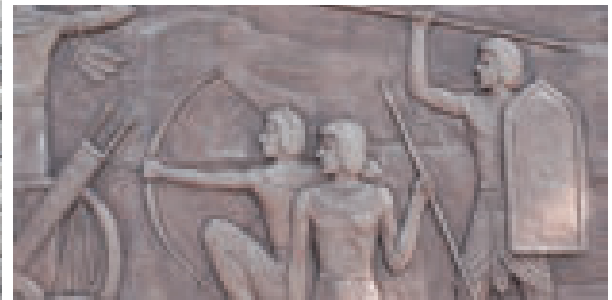
지역 수공예 집

자치구 중심에 지은 집, 지역의 거의 잊혀져가는 역사적인 특징에 맞는 건축으로 지은 것이다. 우리 자치구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에게 직업을 얻기 한 지역적인 수공예 학원이 열린다. 공공 교육 학원을 돌아다니면서 제작하는 과정을 볼 수 있고, 직접 제작하는 것을 참여할 수 있고, 완성품을 구입할 수 있다. 카페테리아에서 방문자들에게 지역적인 음식과 터키 커피를 대접한다. 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센터에서 때때로 전시회도 열린다.

보야즈칼레시 광장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작고 귀여운 가게들과 좁은 골목길, 찻집같이 생긴 다방(남성전용), 참나무를 이용해 빵을 굽는 가게, 부티크 호텔, 천연보호구역의 거의 무너질 듯한 집들로 인해 너무나 전통적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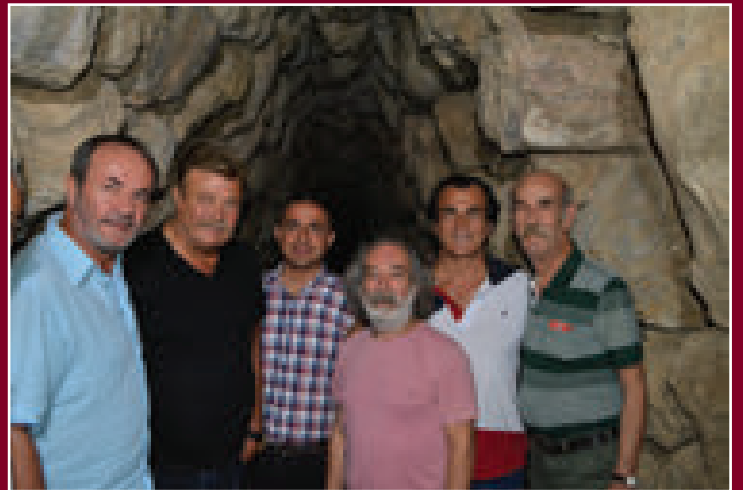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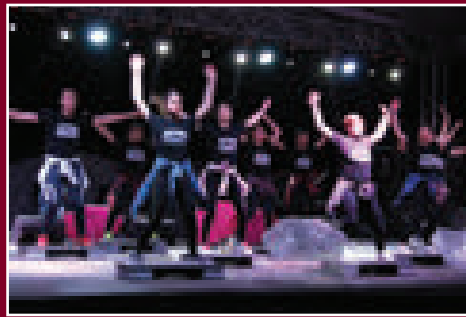
또한 시 광장에 있는 히타이트 기념관은 시의 상징 중 하나이며 사방에서 히타이트 동상들로 구성된 부조들로 히타이트 글과 상징들이 여기가 히타이트 도시인 것을 온 세상에 울부짖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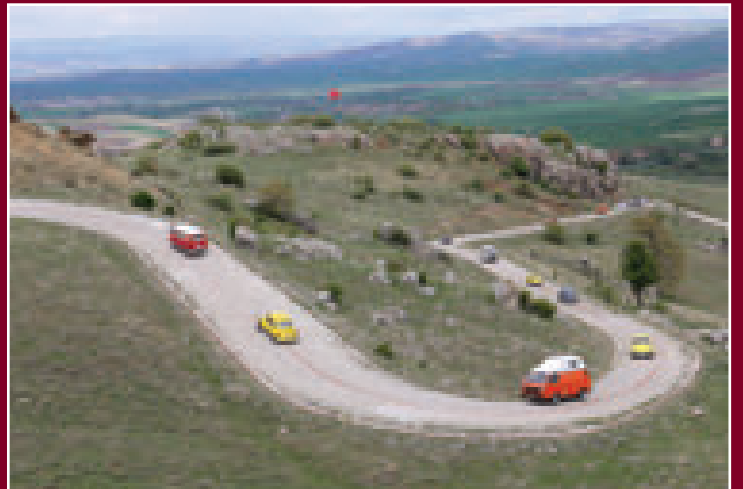




도시 기념물

평화의 도시 하투샤의 바로 입구에 있는 “카데쉬 평화 기념물” 보야즈칼레 자치구에 의하여 카데쉬 평화를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한다. 평화의 도시인 하투샤가 방문객들을 평화의 기념물로 맞이한다. 입구에서 하투샤에 갈때 도시 광장에 있는 기념물에 하투샤와 야즐르카야에 있는 다양한 동상들이 그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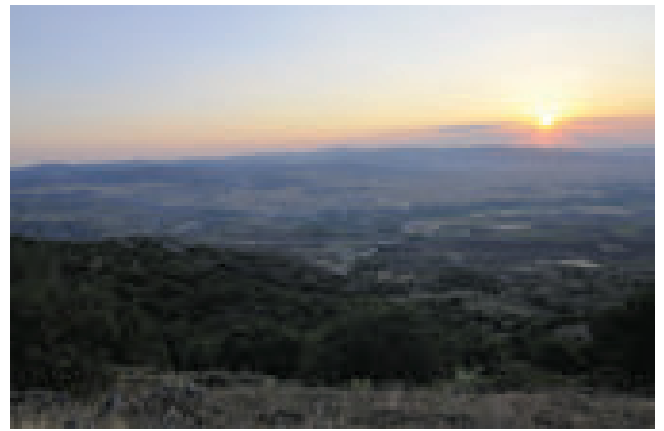






이빅참 연못과 산책 코스

이빅참 연못 산책 코스와 일본 정원이 자치구로부터 4km 거리에 있다. 참나무와 연못이 함께 어우러져 너무나도 천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연못에 있는 금붕어를 구경할 수 있고, 독특한 자연이 있는 산책과 소풍을 할 수 있다. 아이들은 안전하게 놀이터에 보내고 그네와 벤치에서 앉아 연못을 바라보며 하루 동안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다. 또한 히타이트 산책 코스;" 하투스-연못-참프나르-이빅참-야즈로 골짜기"그 코스를 이용할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휴식과 숙박 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진 캠핑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일드즈(YILDIZ) 고지에서의 일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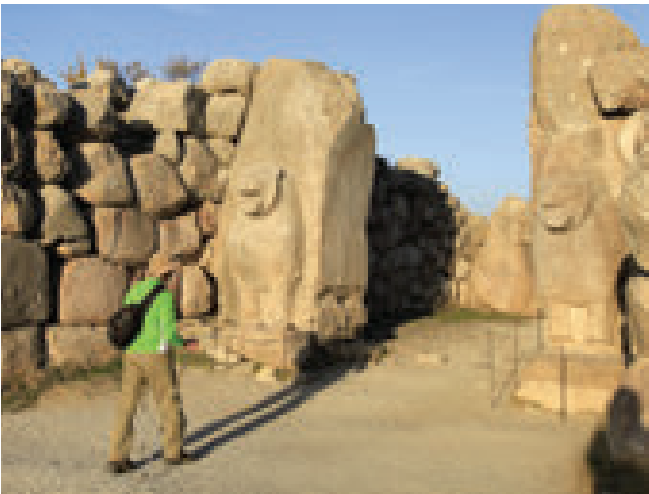
야즐르카야 개방형 신전이 자리잡은 산의 정상에 있는 일드즈 언덕에서부터 펼쳐진 평원과 같이 하투스 경치가 있는 일몰을 보는 것은 하루 동안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린다. 발아래 펼쳐진 고대도시 하투스야와 붉은색의 모든 그늘에 쌓여진 산들과 우거진(관목) 숲 사이에서 하루의 마지막 노래를 지저귀는 검은 새와 같이 독특한 일몰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설화에 따르면 히타이트 왕들도 이 언덕에서 일몰을 감상했었다고 한다.





하타이트 산책 코스

히타이트의 도시들을 서로 연결하는 길로 구성된 코스이다. 하투샤-알라자효육-샤피누와 사이에서 선택적인 코스와 함께 385km 산책 코스와 406km 자전거 코스가 있다. 테마의 특징에 따라 히타이트 길에서 역사와 자연이 서로 어울러지는 신비한 여행이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코스의 제일 주목할만한 점은 전혀 의심할 필요없이 보아즈칼레 지구 경계에 있다. "하트샤-카알르보아즈 협곡-이빅참 연못-참프나르 숲-이빅참 촌락-야즈르 골짜기-야즈르 시골-보아즈칼레 지구 중앙-야즐르카야-올드즈 언덕-효케 포도원"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코스이고 약 40km의 거리이다.



하타이트 성벽

하투샤 고적지(유적지) 입구에, 추쿠르 하르만 지역에 있는 하투샤 도시 성벽은 원본을 그대로 본따 만들어진 감동적인 건축물이다. 또한 성벽이 있는 추쿠르 하르만 지역은 중요한 행사들이 열리는, 캠핑카와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자연적인 캠핑 지역이다.



키벨레(Kybele); 프리지아 풍요의 여신



지역별 수라상

지역별 부엌이 자기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봄 동안 나온 마드막, 크로커스 필라브, 참나무 버섯, 거위 필라브, 케쉬켈, 차탈 아쉬, 터키식 만두, 향아리 케밥, 포도 조청, 야생 로즈힙, 아라바쉬 수프와 같이 먹는 특별한 밀가루 음식이 지역에서 꼭 먹어봐야 할 필요가 있는 음식으로 추천된다. 또한 자치구에 온 관광객들은 주문을 요청하면 일부 음식점들에서 만든 경험 있는 히타이트 부엌에서 온 음식들을 맛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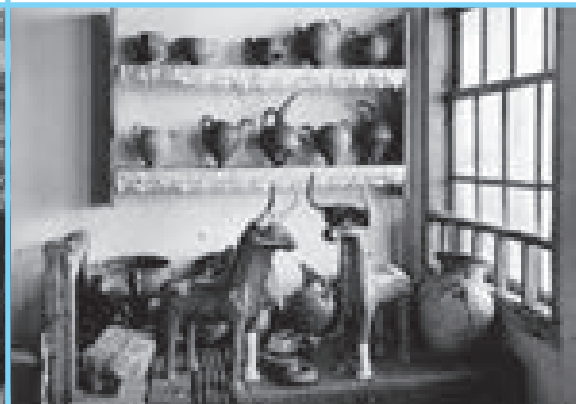


하투샤 발굴의 역사

하투샤, 1834년에 프랑스 여행자와 고고학자인 샤를 텍시에를 통해서 발견되었다. 샤를 텍시에, 보가즈코이에서 10일간 머물고 페허의 측정 및 도시 도안을 그리게 되었다. 이 기간동안 텍시에가 제일 감동한 것은 야즐르카야에 있는 부조들이었다. 샤를 텍시에, 보가즈코이에서 봤던 작품들에게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 보가즈코이 이름을 온 세상에 알렸다.

아나톨루와 시리아에서 비슷한 부조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학자들이 보가즈코이에 몰려들었다. 1893-1894년 사이에 에르네스트 샹트르를 통해서 처음으로 발굴하기 시작했다. 이 발굴에서 상형문자 점토판이 세상에 빛을 보았다.

보가즈코이에 있는 상형문자 점토판들이, 아시리아의 전문가 휴고 빙클러의 주목을 끌었다. 테도르 마크리디와 같이 1905년에 원정을 하고 난 후 1906년에 발굴을 시작했다. 아시리아 전문가 휴고 빙클러가 이 곳이 히타이트의 수도 하투샤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히타이트의 역사가 조명되기 시작했다.



1911-1912년 때 제 1차 세계 대전에서도 발굴 작업이 계속 되었지만 그 후에 제1 터키 독립전쟁때문에 발굴이 중단되었다.

제1차 세계 대전 후에 1931년에 독일인 쿠르트 비텔을 주도로 해서 새로운 발굴이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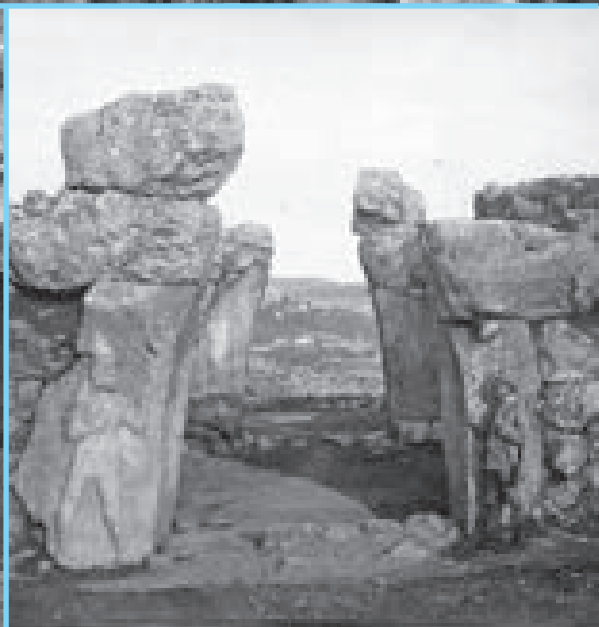
1931-1939년 사이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되었기 때문에 중단된 후에 1952년에 쿠르트 비텔 주도로 해서 발굴을 다시 시작했다.

1978-1993년 사이에서 피터 니브 주도로 하는 발굴들이 유카르 도시에서 시작했다. 발견된 많은 신전과 하투샤가 신과 여신들의 수도인 것이 알려졌다.

1994-2005년에 위르겐 시허가 발굴 작업을 시작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안드레아스 샤흐너의 주도로 해서 발굴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1986년에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 문화 유산 목록에 들어갔다. 1988년에 보가즈코이-알라자효육 "국립 공원"으로 발표되었다.





주요상형문자의정의

	"신"		"산" "신성한산"
	"큰/대"		"강"
	"왕"		"곳"
	"대왕"		"하늘"
	"대왕비"		"태풍의신"
	"왕의아들,왕자"		"하늘의태풍신"
	"도시"		"태양"
	"국가"		"태양의신"
	"영웅"		"남자" (ziti)
	"성"		"여성, 여자"

주요상형문자의정의

	"아들,자"
	"딸, 녀"
	"사랑하다,사랑"
	"분쟁"
	"선량"
	"포도원, 포도덩굴, 포도주"
	"나"
	"책, 태블릿"
	"운전기사"
	생활

	투탈리야
	슈필루리우마
	무실리
	무와탈리
	하투실리
	우르히테숨(무실리 Ⅱ세)
	말니갈
	다누헤파
	푸두헤파
	아르누완다



ULAŞIM / Transportation



Boğazkale - Alaca Höyük	35 km
Boğazkale - Çorum	87 km
Boğazkale - Ankara	203 km
Boğazkale - Yozgat	45 km
Boğazkale - Kapadokya	210 km
Boğazkale - Samsun	254 km



연락처 /Contact Information

보아즈칼레 지사

보아즈칼레 /초룸 / 터키

전화: 0 364 452 20 01 •팩스: 0 364 452 21 23

이메일: bogazkale@icisleri.gov.tr • 웹: www.bogazkale.gov.tr